

류현진, 아시안 최초 사이영상 '1위표' 획득 ... 수상엔 실패

한국인 투수 최초로 사이영상 후보에 올랐던 류현진이 2019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올랐다. 사이영상 수상자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미국프로야구(MLB)에서 활약한 아시안 투수 가운데 최초로 1위표를 획득하기도 해 새 기록을 남겼다는 평가이다.

'MLB 네트워크'는 13일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선정한 양대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최종 3명의 후보는 류현진(32·FA)을 비롯해 제이콥 디그롬(31·뉴욕 메츠), 맥스 슈어저(35·워싱턴)였다. 개표 결과 사이영상은 디그롬이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디그롬은 1위표 29장, 2위표 1장을 얻어 207점을 얻었다.

아시아 투수 최초로 사이영상 1위표 1장을 얻은 류현진은 2위에 올랐다. 1위표 1장, 2위표 10장, 3위표 8장, 4위표 7장, 5위표 3장을 받아 88점을 얻었다. 슈어저는 2위표 8장, 3위표 8장 등을 얻어 72점으로 3위였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182%이닝)에 선발 등판,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163탈삼진을 기록했다. 아시아 투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따냈다.

MLB 네트워크는 발표에 앞서 최종 후보 3명을 소개하며 "류현진은 8월 12일까지 12승 2패 평균자책점 1.45였다. 디그롬, 슈어저 경쟁자 보다 ERA이 1점 가까이 낮았다."고 전했다.

디그롬은 32경기(204이닝)에 선발 등판, 11승 8패 평균자책점 2.43, 255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다. 탈삼진 1위, 평균자책점 2위, 이닝 3위, WHIP 2위로 세부 지표가 뛰어나다. 7월초부터 등 부상으로 한 달 반 넘게 결장한 슈어저는 27경기(172%이닝)에 선발 등판, 11승 7패 평균자책점 2.92를 기록했다.

과거 아시아 투수로는 2013시즌 다르빗슈 유(텍사스)가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올랐고, 2006년 왕첸밍(뉴욕 양키스)이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2위를 차지했다. 다르빗슈는 총 93점, 왕첸밍은 총 51점을 얻었다. 두 선수 모두 1위표는 얻지 못했다.

한편 사이영상은 BBWAA 소속 기자 30명의 투표로 선정된다. 투표권을 가진 기자는 1위부터 5위까지 5명을 뽑을 수 있다. 1위표는 7점, 2위표는 4점, 3위표는 3점, 4위표는 2점, 5위표는 1점을 각각 받는다.

우즈, 라디오 방송 인터뷰 도중 욕설로 '구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호주 라디오 방송 도중 욕설을 해 구설에 올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즈는 12일 호주 라디오 방송 '트리플M의 핫 브레이크아웃'라는 프로그램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다가오는 프레지던트스컵 대회와 은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즈는 언제가 찾아올 은퇴와 그 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은퇴 후 내 모습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며 "난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좋아하고 물에서 노는 것도 좋아한다. 또 사냥을 좋아해 사냥 여행이나 낚시 여행, 다이빙 등 자연 속에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 성향상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골프는 항상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에 나가는 것이 좋고 나로서는 그것이 궁극적

으로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우즈는 은퇴 후에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하면서 "F***ing"이라는 욕설을 사용했고, 이 부분은 방송에서 '뽀' 소리로 대체됐다. 방송을 진행하던 사회자들도 우즈의 욕설에 당황한 듯 웃음으로 넘겼다.

한편 우즈는 이날 인터뷰에서 은퇴 후 자신의 얘기뿐만 아니라 주말 골퍼를 위한 기본적인 연습 방법도 알려줬다. 우즈는 "골프가 재미없어지고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클럽 페이스 중앙에 볼을 맞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작은 스윙이나 보다 큰 스윙을 할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 페이스 중앙에 볼을 맞히는 것"이라며 '정타치기'를 강조했다.

우즈는 12월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골프대항전 프레지던트스컵에 단장 겸 선수로 출전한다.

ML 감독 3명, 사인 훔치기 논란 조사

현역 감독 세 명이 휴스턴 애스트로스 사인 훔치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엠스플뉴스'에 따르면 스포츠매체 '디애슬레틱'은 전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J. 힌치 휴스턴 애스트로스 감독, 알렉스 코라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 카를로스 벨트란 신임 뉴욕 메츠 감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디애슬레틱'은 12일 "휴스턴에서 뛰었던 투수 마이크 파이어스의 증언을 바탕으로 휴스턴이 외야에 카메라를 설치해 상대 팀의 사인을 훔쳤다."며 "선수들과 구단 직원이 화면을 보고 사인을 읽어내면 통로에 있는 쓰레기통을 두드려 덕아웃에 전달했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인 훔치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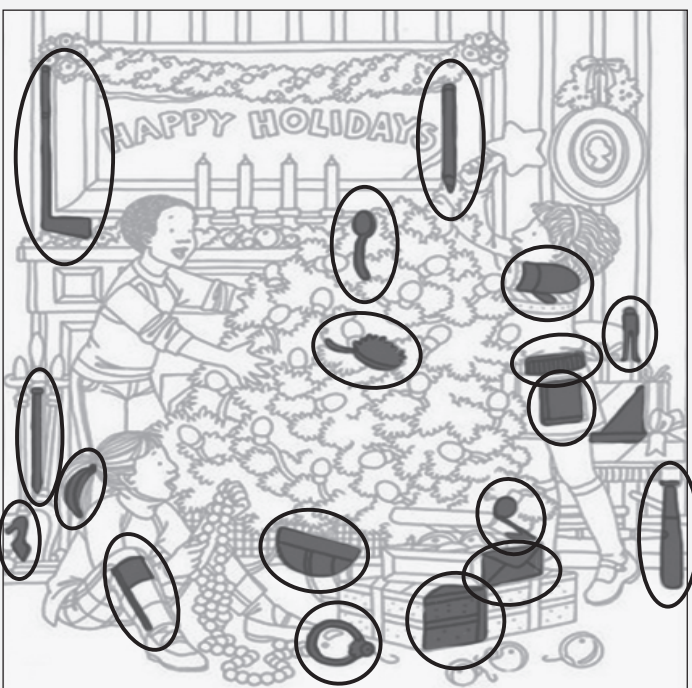
디애슬레틱은 또 현직 감독이 세 명이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2017년 당시 보스턴 코라 감독은 휴스턴의 벤치코치직을 역임했고, 벨트란은 선수 생활의 마지막해를 보내고 있는 시기였다.

코라 감독과 힌치 감독은 사인 훔치기 의혹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벨트란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휴스턴이 딱히 잘못된 게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벨트란은 "우리는 컴퓨터로 상대 투수를 연구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내가 활용하고 이해한 유일한 기술이다. 이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차이를 활용해 이점을 얻은 것"이라며 "승리한 팀을 비난하는 건 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휴스턴의 신인 드래프트를 제한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1290호 낱말퍼즐 정답

	1 공			2 당	선	3 작	
	4 포	복	5 절	도		6 심	의
7 지	탄		차			삼	
필		8 가		9 초	10 지	일	11 관
12 목	13 목	부	답		계		제
	주			14 처		15 사	탑
16 온	기		17 재	택	근	무	
	18 도	우	미			실	